

원·달러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 접근

‘1500원 공포’… 정부 개입 분수령

관세 변수 해소에도 고환율 지속
美셧다운·금리동결 전망 등 영향
구윤철 부총리 “가용 수단 총동원”
국민연금·수출업체 등 긴밀 논의

원·달러 환율이 통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으로만 간간히 대응할지, 아니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원자재 수입물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 및 기업의 원자재 구매 부담 등으로 이어지고, 국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인 탓에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단은 없는 노릇이다.

1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오른 1458.0원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 수치인 1483.5원에 바짝 다가간 상황이다. 환율은 불과 2개월 전인 9월17일(1381.00원)과 비교해 77원(5.57%)이나 올랐다.

이례적이라는 1400원대는 백악관발 관세정책의 일시적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되면 원화값이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이 현재까진 들어맞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만나 타결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주말



코스피는 전 거래일(4011.57)보다 77.68포인트(1.94%) 오른 4089.25에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97.90)보다 4.77포인트(0.53%) 상승한 902.67,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57.0)보다 1.0원 오른 1458.0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됐으나 환율은 하락이 아닌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145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인데, 연내 1500원대 진입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한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유동성 약화가 급등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긴 요인이다.

외환당국은 지난 14일 구두개입에 나

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언급한 부분은 시장의 관심을 끈다. 구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애티(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애티’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

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딩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애티’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metro[®]

서울 부동산 거래 ‘셧다운’ 수도권 비규제 지역 ‘힐힐’

10·15 대책 시행 한달

지방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수에 거래는 급감했고, 수도권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0.13%→0.11%)과 서울(0.19%→0.17%)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10·15 대책 이후 ▲10월20일 0.50% ↑ ▲10월27일 0.23% ↑ ▲11월3일 0.19% ↑ ▲11월10일 0.17% ↑ 등 4주 연속 상승폭

이 둔화됐다.

거래는 뚝 끊겼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20일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43% 감소했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했지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지방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로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램 공급 불안, HDD·SSD까지 번졌다

AI 열풍에 글로벌 스토리지 경고등 내년 저장장치 전반 공급부족 우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을 넘어 저장장치 전반의 공급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중심의 스토리지 수요가 기존 메모리 사이클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낸드플래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컨트롤러 등 주요 품목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 에이테이터 경영진이 연이어 시장 경고를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공급 불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스토리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 대규모 AI 학습·추론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최신 규격인 NVMe SSD 뿐 아니라 HDD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 원천데이터 저장용 HDD 발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 월리스 쿠는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서버와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상당한 생산능력을 선점하고 있다”며 “HDD와 낸드플래시, HBM 등 일부 제품군에서 2026년도에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압박은 부품·모듈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HDD는 플래터와 모터 등 핵심 부품 리드타임이 길어지며 생산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낸드플래시는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 공급 조정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SSD 컨트롤러 역시 성숙공정 기반 파운드리 공급 여건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고객사의 내년·후년 물량 소화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에이테이터사 이면 첸 회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가 HDD와 SSD, 낸드를 동시에 흡수하는 것은 업계를 오래 경험한 입장에서 드문 흐름”이라며 “메모리 전반에서 공급이 빠듯해지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HBM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D램 전체 웨이퍼 배정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 역시 꾸준히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제조사들이 동일한 D램웨이퍼에서 HBM용 투입 비중을 높일 경우 범용 D램 공급 여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병목 지점은 다르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공통적인 수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저장장치 전반의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희준 기자 nauta@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당원 1인 1표’ 도입 묻는 전 당원 투표 실시”
/사진 뉴시스
▲외교부 “핵잠 운용, 특정국 대상 아니다”… 中 반발 차단 나서

▲한동훈 “나는 대선까지 나갔던 사람…왜 불출마 선언 해야 하나”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 중증 내로남불”

▲‘메기’ 되겠다는 조국… 호남 찾아 “민주당 안방 정치 바꾸겠다”
▲한동훈 “아무 말 대잔치 말고 민주당 대표로 나와라”… 박병계에 공개 토론 제안